

# '3천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 실계약으로 잇는다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대표이사 김행란)가 지난 10월 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 거둔 3천304만 달러(약 463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실질적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박람회재단은 오는 4-5일 나주 웨스턴 호텔에서 지난 수출상담회 당시 수출협약을 한 24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해외바이어 사후 수출컨설팅'을 개최한다.

컨설팅은 단순한 협약이 그치지 않고, 복잡한 통관 절차와 국가별 규제 등으로 실제 선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수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계약 이행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람회재단은 지난 10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25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17개국 50개 사 바이어와 국내 100개 수출기업이 참여한 이 상담회에 선 총 639건의 열띤 상담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3천304만 달러의 수출협약 체결을 거뒀다.

특히 전남의 대표 농산물인 '새청무 쌀'이 277만 달러(약 40억 원)의 협약을 이끌어내며 세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3천27만 달러(약 423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멕시코와 케냐 등 신규 시장 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과



지난 10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5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모습.

##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재단, 해외바이어 사후 수출컨설팅 오는 4일부터 양일간 나주서 24개 수출기업 대상으로

영국 바이어의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판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후 컨설팅은 이러한 성과가 문서상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돕는 '수출 인큐베이팅' 과정이다. 행사에는 수출협약 기업 관계자 30여 명과 무역 전문가, 관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한문철 전남식품수출협회

장의 협약 이후 수출기업 준비사항, 김호진 옐피스코퍼레이션 이사의 유럽시장 트렌드와 수출 준비전략 등 실무 중심의 특강으로 준비됐다. 특히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통관과 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진민형 관세사(관세법인 더블유) 등 분야별 전문가가 멘토로 나선다.

행사 첫날인 4일 바이어 응대 전략 수립과 국가별 수출 프로세스 점검 교육이 진행

되고, 5일 기업별 1대1 맞춤형 수출 멘토링이 이어진다. 멘토링에서는 협약을 한 바이어와의 교신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선적 서류 준비 등 단계별 밀착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관수 (재)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협약이 수출의 첫 단추라면, 실제 계약과 선적은 수출의 완성"이라며 "이번 사후 컨설팅을 통해 우수 농식품 기업이 해외 바이어의 약속을 실제 성과로 실현하고, 나아가 전남 농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참여기업(㈜프리모가기아차량기반확장 플랫폼(PBV) 분야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 광주 소부장 기업 프리모, 세계로 뻗어간다 '기아 글로벌 PBV 협력기업 파트너십' 체결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참여기업이 '기아 글로벌 확장 플랫폼 협력기업'으로 선정, 세계로 나아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참여기업인 ㈜프리모가 기아의 차량기반 확장 플랫폼(PBV) 분야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2025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십 데이'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행사는 국내·외 주요 컨버전사(특장기업)와 함께 '글로벌 PBV 컨버전 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1부 테크니컬 세션에서 기아 차량 기반 확장 플랫폼(PBV)의 핵심 전략이 공개됐고, 이후 기아와 ㈜프리모 등 국내 차량 기반 확장 플랫폼(PBV) 컨버전사들의 파트너십 인증과 수여식을 진행했다.

기아는 앞서 지난 10월 '차량 그 이상

의 플랫폼'이라는 차량기반 확장 플랫폼(PBV)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기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프리모는 차량용 전장부품(자동차 조명장치 등) 및 특장차량을 제작(하이루프 및 시트 포함)하는 전문기업으로, 기존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협력기업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윤성훈 (㈜프리모 대표)은 "어려운 시기에 기아 글로벌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적극 지원해 준 광주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광주 소부장기업인 프리모가 기아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 11월 전남 물가상승률 2.6% '16개월만 최고'

광주 전년동월 대비 2.3% ↑

11월 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 이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데이터센터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1(202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

지난 10월 광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2024년 7월(2.8%)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나 지난달에는 포함세를 유지했다.

품목성질별보면 굴(45.5%), 사과(30.3%), 쌀(15.5%), 고등어(22.9%), 경유(11.5%), 휘발유(5.6%), 커피(15.5%), 수도료(8.0%), 도시가스(0.5%), 택시료(12.4%) 등이 올랐다.

국산 쇠고기(-9.9%), 토마토(-14.6%), 무(-36.2%), 즉석식품(-7.5%), 식용유(-19.1%), 유채원납입금(-88.5%), 시너베스료(-4.5%) 등은



내렸다.

11월 전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2024년 7월(2.9%) 이후 1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상승률은 3.0%다.

지난달 10월 전남 소비자물가상승률 2.4%에 이어, 지난달 2.6%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팔 기자

## 광양시, 철강산업 연관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본격 추진키로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0억...11일까지 신청 가능

광양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철강산업 및 연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산업위기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철강산업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정부가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 소재 1차 금속제조업(C24) 기업 및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계약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리 중

최대 3%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시설자금(기계설비 구입·공장 설립·토지매입·건축·시설 확충 등 자산화되는 자금) 및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목) 오후 6시까지이며,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2026년 1월 중순경 예정된 추가 공고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 고흥물, 겨울철 해산물 대상 최대 30% 할인 판매 기획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흥물'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오는 9일까지 '고흥 동(冬)해산물 파티-겨울 바다를 담다'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겨울철 맛과 영양이 절정에 달하는 고흥산 수산물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기획전 기간 꼬막, 문어, 새우, 굴, 낙지를 비롯해 반건조 생선과 숯불구이 생선 등 다양한 겨울 제철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고흥은 청정 남해와 풍부한 일조량

을 바탕으로 사계절 내내 우수한 수산물 생산되는 지역으로, 특히 겨울철에는 육질이 단단하고 풍미가 깊어지는 어종이 많아 미식가들의 선호가 높다.

이번 기획전은 이러한 고흥 겨울 바다의 맛을 전국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전달하고, 지역 어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겨울 바다의 신선한 맛을 집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품질 고흥산 수산물을 엄선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농어가와 함께 성장하는 공익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소비자 만족을 높이고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